2024년도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기술 확대 사업 결과보고서 첨부

< 미주 한인사 교육 웹툰 제작 >

한국어본 1화 – 23화 웹툰 전편 원본

2024.12.09.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1화

**첫 공식 이주 한인 :
하와이 노동자들**

1화

당시 하와이 이민 모집 공고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하와이 이민 여권
우와~ 이게 그 당시 실제 여권이래~!

하지만, 큰 꿈을 품고 하와이로 간 한국인들에게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고...
한국인 이민자들은 교회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인 선교사의 영향으로 이민을 오게 된 첫 한국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도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지했으며 1905년 최초의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이후 교회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호놀룰루 한인 감리교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 :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1903년 10월 한인감리선교회로 시작해 1905년 정식 승격

이민 첫 해인 1903년 16척의 배를 통해 추가로 천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해 왔지만, 결국 1~2년 후 이들은 농장을 떠났고, 약 1,300여명의 한인들은 캘리포니아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미국 본토 정착을 시작했죠.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 이제 여길 뜹시다.

1화

그 후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며
안창호, 이승만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길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왔어요.
우리도 미국으로 갑시다.
미국에서 독일을 도모 하시죠.
*경술국치 :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불법조약이었던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해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알렉산드로 드루'
박사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는데요.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을 배우고 독립운동을 이어가시면서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골격을 세우셨답니다.
MR. 안!
우리집에서 같이
지내자 ~
*알렉산드로 드루 박사 : 한국에서 8년 동안 의료선교사를 지낸 의사로,
안창호 선생님과 안면이 있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2화

한국의 사진 신부 :
강인한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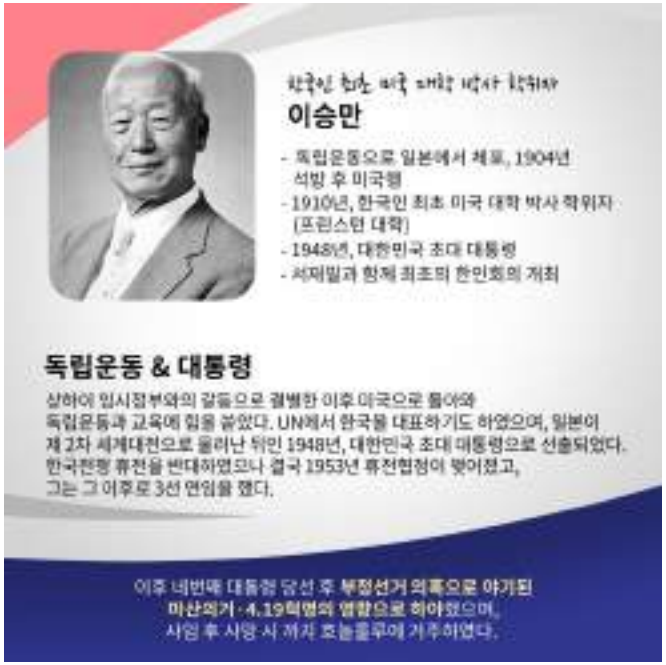
2화

한편, 사진 신부들은 하와이에 다양한 여성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고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한인 사회를
가족중심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내가 미국이 아니라
미래로 온건가!
너무 힘들다...
사진만 보고 평균 20살 차이나는 모르는 남성들과
결혼해야 했으며,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와이 여성 독립운동 조직: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대한부인구제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활동했고 그 중 4명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그러던 1924년 이민제한법과 아시안 배척법이 제정되며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사진 신부 교환도 중단되었답니다.
아시안
배척법
이민
제한법
3화

3화

명예의 전당 :
서재필-이승만
최초 한인회의 개최!



4화

파차파 캠프

4화
미주 한인사
파차파 캠프

1904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리버사이드로 이주하게 되고,
곧바로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농장주인
'코넬리우스 얼 렘지'와 신뢰하는 동지 사이가 되었어요.
안, 더운데 쉬면서 해~
땡스, 렘지~
코넬리우스 얼 렘지
안창호
*리버사이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내륙, LA의 동쪽 약 100km에 위치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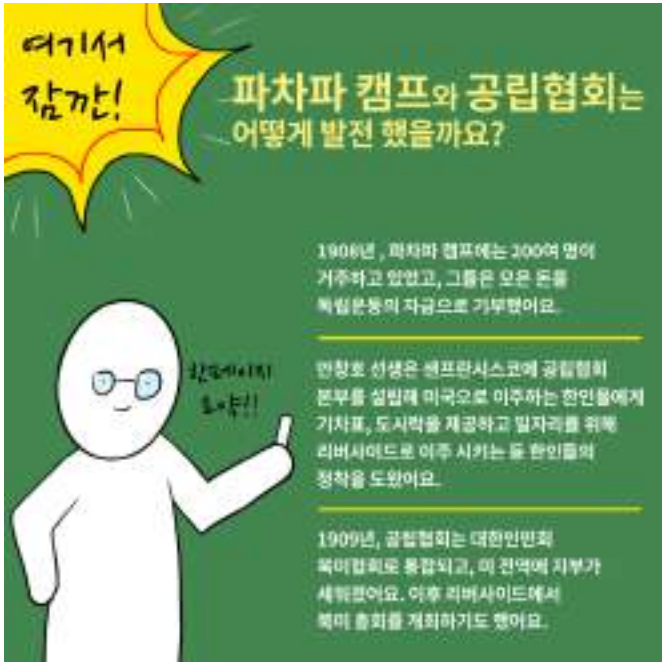
렘지는 한인 노동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자신의 농장에 한인들을 고용했는데요.
헉 어떻게 내팀을
들리게 말했어
노동국이 있어야 동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텐데...
음... 돈이 좀 들지..? 내가 빌려 줄게!
안창호
코넬리우스 얼 렘지
당시 노동 계약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한인 노동국은 미주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코넬리우스 얼 렘지 : 200 에이커의 농장을 운영했던
대갑부로 안창호를 한인들의 지도자로 대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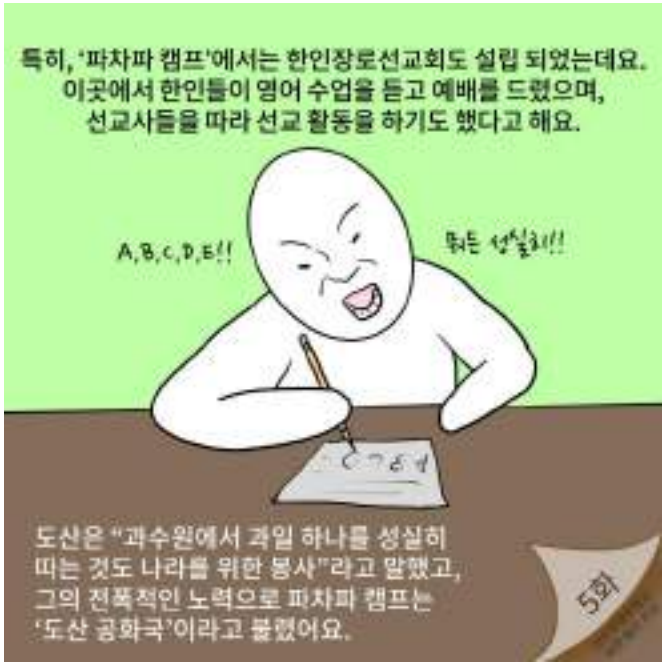
이 때 만들어진 한인 전용 직업 소개소인 한인 노동국이
리버사이드 1532 파차파 애비뉴의 건물로 이사했고,
이것이 한인들의 거주지인 '파차파 캠프'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거야...
안창호

4화

공식적으로 '한인 거주지'로 불렸던 '파차파 캠프'는
20채 정도의 판자촌으로 시설이 열악했는데요.
가스, 물, 전기가 없었고 바람을 막기 위해
장문 틈에 진흙을 발라 생활했다고 해요

안창호 선생은 1905년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자
'리버사이드 공립협회'를 설립해 한인 사회를 단합하고
가족중심의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를 위해 '파차파 캠프'에서 자치와 규율을
만들어 통치를 했고, 공통적인 생활방식을 통해
강한 한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잠깐!
파차파 캠프와 공립협회는
어떻게 발전 했을까요?
1906년, 파차파 캠프에는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은 돈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기부했어요.
안창호 선생은 샌프란시스코에 공립협회
본부를 설립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에게
기차표, 도시락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위해
리버사이드로 이주 시키는 등 한인들의
정착을 도왔어요.
1909년, 공립협회는 대한인민회
북미지회로 통합되고, 이 전역에 지부가
세워졌어요. 이후 리버사이드에서
북미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특히, '파차파 캠프'에서는 한인장로선교회도 설립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한인들이 영어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며,
선교사들을 따라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A,B,c,D,E!!
도산은 "과수원에서 과일 하나를 성실히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봉사"라고 말했고,
그의 전폭적인 노력으로 파차파 캠프는
'도산 공화국'이라고 불렸어요.
5화

5화

한인 무장투쟁 &
헤멧 밸리 사건

5화

대한인국민회의 도움으로 네브래스카 헤이스팅스에
군사 학교를 설립해 군사 작전, 영어, 수학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이 군사 학교가 중단된 이후에도 박용만은
하와이, 캔자스, 와이오밍 등의 전역에 군사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한편,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1913년 1월, 오렌지 농장에 닥친 한파로
직장을 잃고, 헤멧 지역 살구 농장에 고용되었는데
헤멧 기차역
아시아인들은
당장 나가라~!
반일/반아시아 감정이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헤멧 기차역에서
한인들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로, 일본은 미국에 공식적으로 외교적 사안라며
항의를 했는데, 한인들은 일본의 도움을 거절하며
이것은 '한국과 한국인들'의 문제임을 밝혔어요.
우린 한국인이다!!
일본은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
특히 대한인국민회 회장이었던 이대위 선생은
직접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보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에 윌리엄 J. 브라이언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과 사이가
경색될 것을 걱정하며 미주 한인을 일본 식민지 국민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의
식민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본은
개입하지 마시오.
윌리엄 J.
브라이언
*윌리엄 J. 브라이언 (1860-1925) : 미국의 제 41대 국무장관

5화

이 사건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은 정치적 난민으로
받아들여져 미국 이주가 쉬워졌고
'파차파 캠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1918년, '파차파 캠프'는 없어지게 되었어요.
부디
몸조심하고
잘 지내시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납시다
6화

6화

명예의 전당:
파차파 캠프의 주역

7화

미주 한인사회에서의 교회, 기독교의 역할

7화

이렇듯, 미주 한인들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교회는 한인 사회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답니다.
29%
1%
1900년대
2014
한국인 들 기독교인이
이렇게나 많아 졌다구~?
8화

8화

한국인 공군 역사

8화
미주 한인사
한국인 공군 역사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가 제1차 세계대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미군으로
전쟁에
참전합시다!
나는 공군으로
지원 하겠소
제1차 대전 발발 후 많은 미주 한인들은 미군에 입대하는데요.

미군에 입대한 한인 중 '에드워드 석조 리'는
한인 중 높은 지위인 병장(Sergeant)에 이르렀고
'이응호'는 한국인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제1차 세계대전 중 156개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한편, 3·1 만세운동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에
임명된 '노백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종림'을 만나
미국에서 비행 학교 및 비행군단 설립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김종림
노백린
•노백린 :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군무총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김종림 : 22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백만장자로, 비농사로 큰 돈을 벌어 임시정부 최고의 기부자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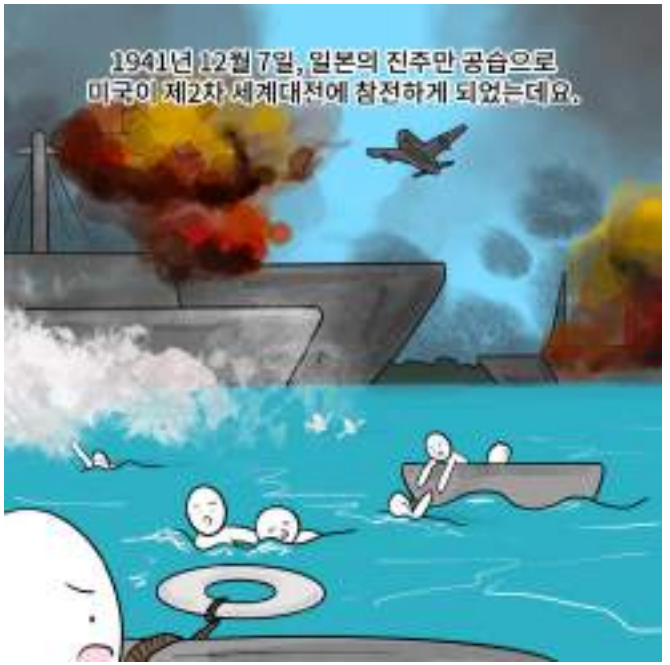
8화

'김종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쌀을 팔아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에 $50,000(현재 약 65만 달러)를 비행학교 설립에 기부했고,
자금 걱정 NO!
임시정부 승인도 걱정 마시게
김종림
노백린
국방장관 '노백린'은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1920년 3월,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가 된
'윌로우즈 한인 비행학교'가 설립되었어요.

학교의 첫 입학생은 24명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던
3-5개의 비행기로 훈련을 받았는데요.
비록 1921년 자금부족으로 학교 운영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졸업생들이 임시정부에 가서
비행훈련을 주도하고 가르치는 결과로 이어졌답니다.
9화

9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미주 한인 영웅들



9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에 입대하여 장교가 된
'김영옥' 대령은 일본계 미국으로 이뤄진 제100 보병대대인
'니세이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부대를 이끌었어요.
* 김영옥 :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3개국(한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최고 무공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

당시,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미국은 김영옥을 다른 부대로
전출 시켜주려고 했으나, 그의 대답을 듣고, 그를 계속
'니세이 부대'를 이끌 수 있도록 했죠.
그들도 미국인이고
저도 미국인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 1941년까지, 미국 내 중국 및 필리핀계를 제외하고 아시아인들의 입대를
금지함. '진주만' 발발 이후 아시아인 미군 입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함.

그렇게 김영옥과 그의 부대는 제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안지오 전투를 비롯해 참전한 다양한 전투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고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로 기록되었어요.
* 그는 미군 최초 아시아계 대대장을 지냈고 미국에서는 수훈십자상을
받았으며 동아시아계 미국인 출신 3대 전쟁영웅으로 대우 받고 있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김영옥은 다시 미군에 재입대해 한국군과
미군간의 협력을 도왔고 그가 이끈 부대는 휴전선을 60km나
북상시키며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는 그 이후로도 많은 공을 세우면서
여러 훈장을 받게 되었고
전역 후에도 여러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살았어요.
10화

10화

미주 한인 정체성의 변화

10화

이후,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10m 다이빙 부문 금메달을 딴
그는 의학 학위를 활용해 미 육군 의료단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주한미군 군의관으로도
복무했던 그는 올림픽에서의 훌륭한 업적을 인정 받아
미국 올림픽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답니다.

1940년대 9,000명 밖에 되지 않았던 미주 한인 1세대는
주로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 등을 어렵게 운영하며
후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였고,
어서 오세요 ~
ALWAYS
OPEN

그로 인해 '새미 리'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들이 차츰 인정 받기 시작했어요.
2
1
3
이제 저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래!!
* 새미 리는 '손기정'에 이어 한민족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
11화

11화

한국전쟁과
전쟁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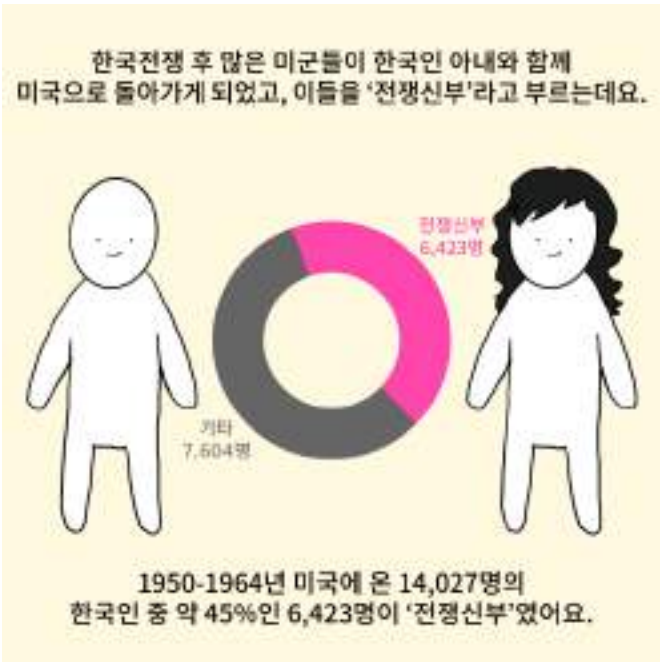
11화

당시 한국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낳은 사생아들이 많았는데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줄
입양자를 찾아보자
1956년 해리와 버사 홀트가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하면서 한국 어린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 시작했지요.
*해리, 버사 홀트 부부 : 한국 전쟁 고아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으며 실제 8명의 고아를 거두어 키우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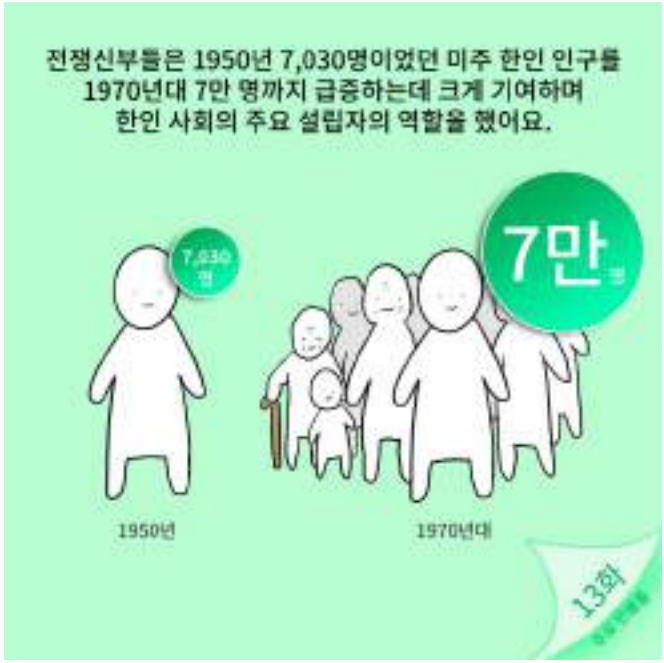
그 이후로 약 10만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미국에 입양되었고,
이는 한국 고아 중 무려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12화

12화

한국전쟁과 전쟁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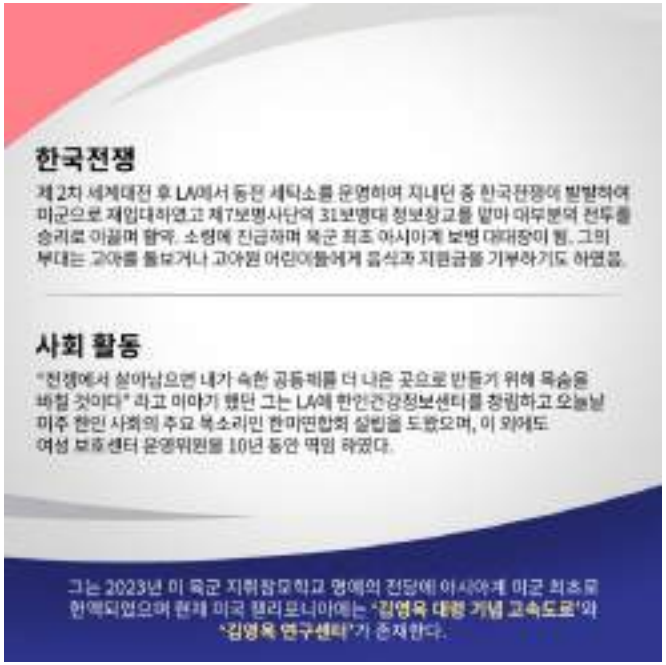


1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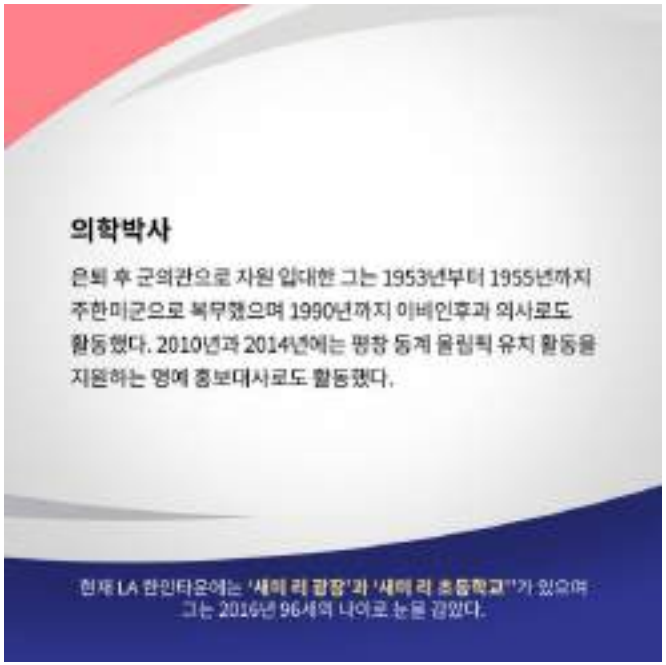

전쟁신부들은 1950년 7,030명이었던 미주 한인 인구를
1970년대 7만 명까지 급증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한인 사회의 주요 설립자의 역할을 했어요.
7,030명
7만명
1950년
1970년대
13화

13화

명예의 전당:
전설적인 기록을 가진 미주 한인 영웅들



1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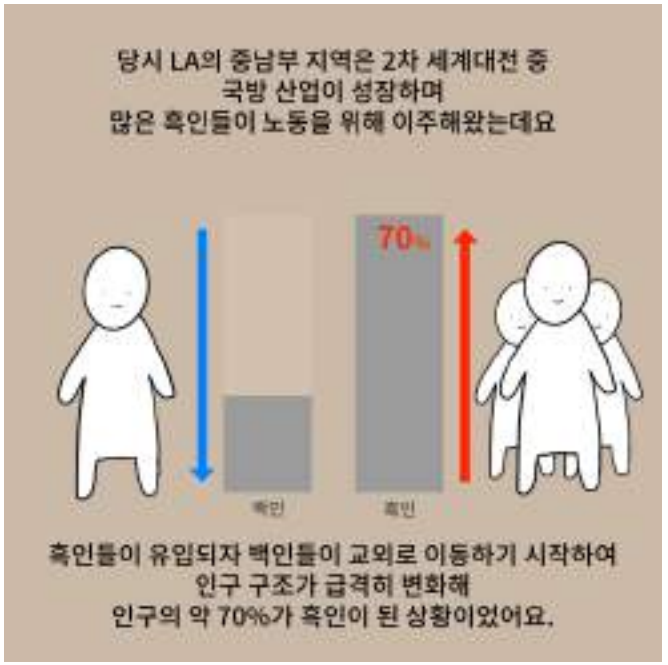

의학박사
은퇴 후 군의관으로 자원 입대한 그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으며 1990년까지 이비인후과 의사로도
활동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현재 LA 한인타운에는 '새뮤리 광장'과 '새뮤리 초등학교'가 있으며
그는 2016년 9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14화

1965년 이민개정법 이후 한인 이민자들

14화

한국에서의 일을 미국에서도 지속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주로 식료품점, 주유소, 주류 매장 등을
운영해 'American Dream'을 꿈꿨지만
KOREA MART
주요 고객층이던 흑인들과 번번히 갈등이 생겼고
인종차별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당시 LA의 중남부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중
국방 산업이 성장하며
많은 흑인들이 노동을 위해 이주해왔는데요
70%
흑인들이 유입되자 백인들이 교외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인구의 약 70%가 흑인이 된 상황이었어요.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백인의 억압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한인들 역시 환영 받지 못했고
결국 두 인종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에 더불어, 1966년 뉴욕 타임즈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에 의해 억류되었었지만 성공을 거둔
일본계 미국인들을 '모범 소수 민족' 이라고 칭했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지 않아?

14화

이는 한인을 포함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들이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편향된 의견을 심어주었고
우리가 차별받잖아!
흑인들은 이런 아시안들과 비교 당하며 차별을 느꼈고 되려 소수 인종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죠.

이로 인해, 주로 흑인 거주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한인들과 흑인 소비자들 간의 갈등 관계가 악화되었고
한인들은 여전히 주류 미국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문화 차이와 오해로 인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어요
15화

15화

최초 한인 언론의 탄생

15화

이후 1979년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입지와
지역 사회 조직력 강화를 위해
NEWS
Good news for travel
Top stories
코리아타운
주간지
Sports
첫 영자 미주 한인 신문
코리아타운 주간지를 창립하는데요.

주로 민권 운동에 대해 다룬 그는
캘리포니아 뉴스 언론인 협회에서 인정을 받고
LA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운동상을 수상하며
NEWS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언론인의 대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6화

16화

1965년 이민개정법 이후 미주 한인의 정체성 (1960-80년대)

16화

또한, 도산 안창호의 장남 '안필립'은 LA 파노라마시
명예 시장이 되고 2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첫 배우가
한국인 이라며?
* 안필립 :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긴 유일한 한국계 유명 영화 배우

미국내 한인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언제까지
이렇고 살아야 되나..
여전히 한인들에게 1960-70년대는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암흑기였어요.

그 후 1980년대 초까지 한인들은 여전히 남북통일과
군사정권과 같은 한국의 주요 정치 사안에 집중했으나
미국에서
이렇게 살 되겠나~?
한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주 한인 협회, 단체들이 생기고 사업도 늘어났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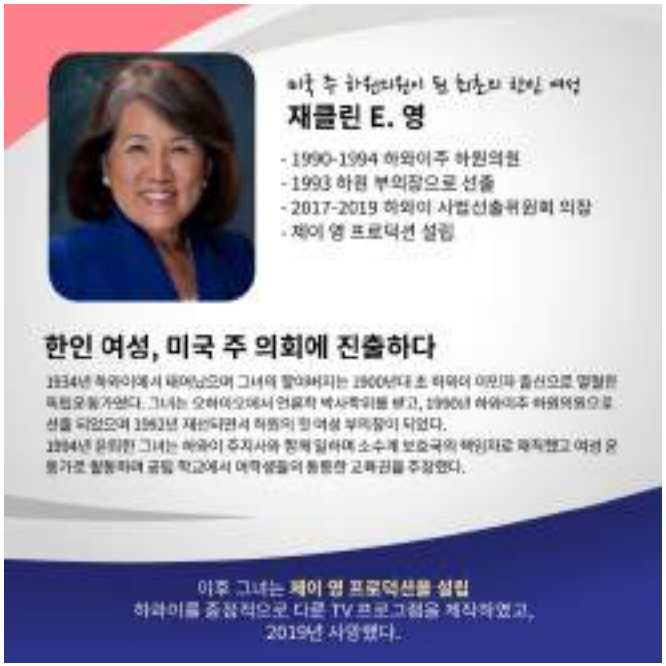
특히,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준구' 선수가 1956년 텍사스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미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태! 권! 도!
그는 미의회 태권도 클럽을 창설하고 45년 동안
'조 바이든'을 포함한 350명의 정치인들에게 태권도
를 가르치며 전세계로 태권도를 널리 알렸어요.
* 이준구 사범 (1932-2018) : 무하마드 알리와 이소룡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던 유명한 태권도 대부, 2003년 6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준 리의 날'이 선포되기도 함.

16화

이렇듯 1980년대 미주 한인들은 미국에 뿌리를 두고
정착해 살았으며 태권도 등으로 주류사회에 존재감을 보였지만
여전히 문화 차이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문화차이
놈아..!
17화

17화

명예의 전당: 미주 한인 최초 언론인과 여성 주 하원의원



18화

1980년대 한·흑갈등

18화

1986년, 두 인종 간 갈등을 중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LA지역 한·흑 연맹이 설립되었지만
Los Angeles Black-Korean Alliance
우리 서로를 이해해 봅시다!
갈등은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던 중 한인에 대한 흑인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1991년 3월 16일,
LA에서 한인 상점을 운영하던 '두순자'는
오렌지 주스를 훔치고 달아나던 15세의 흑인 여자아이
'라타샤 할린스'와의 몸싸움 끝에 그녀를 총격으로 살해하게 되고
코리아 마트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하루에
수 십 번씩 방영되면서 흑인 공동체 사이에서
한인에 대한 분노가 치솟게 됩니다.
19화

19화

LA 폭동: 4.29

19화
미주 한인사
LA폭동 : 4.29

1991년 3월 3일,
LA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순찰대(LAPD) 4인에게 잡혀 곤봉으로
수 십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로드니 킹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이 모습을 촬영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피투성이가 된 '로드니 킹'을 본
흑인 사회는 크게 분노했고
결국 4명의 경찰관은 구속 되었어요.

하지만 이듬해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을 폭행한
경찰관이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판결을 받자
화가 난 흑인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면서 폭행,
방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LA 폭동의 시작이었어요.
피고인은 무죄!
?!
로드니 킹

19화

이것이 바로 '노르망디'와 '플로렌스' 애비뉴에서
처음 시작된 LA 폭동,
즉 4.29 폭동이에요.
Florence
해당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던
많은 한인들은 폭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흑인들의 거친 폭동에
결국 현지 경찰(LAPD)은 한인타운에서 철수했고
한인은 직접 무장하여 한인타운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마을은
내 손으로 지킨다!

당시 미 주류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된 존재였던
한인들은 한인타운에 고립된 채 라디오코리아 등의
한인 언론 매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한편, 미 주류 언론에서는 '두순자 사건' 과 엮어
한인들을 총기를 소지한 잔인한 무법자로 왜곡 보도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안젤라 오
'안젤라 오' 변호사가 직접 뉴스 쇼 <나이트 라인>에 등장해
피해를 입고있는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했어요.
* 안젤라 오: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로 UC Davis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얻고
빌 클린턴 대통령 인종 정책 캠페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함.

19화

이후 LA폭동의 경과
4월 30일 LA 통행금지령
및 비상사태 선포
5월 1일 평화 집회 개최
5월 2일 평화 집회
5월 3일 평화 축구
5월 4일 폭동 종료
20화

20화

LA 폭동의 결과

20화
미주 한인사
LA폭동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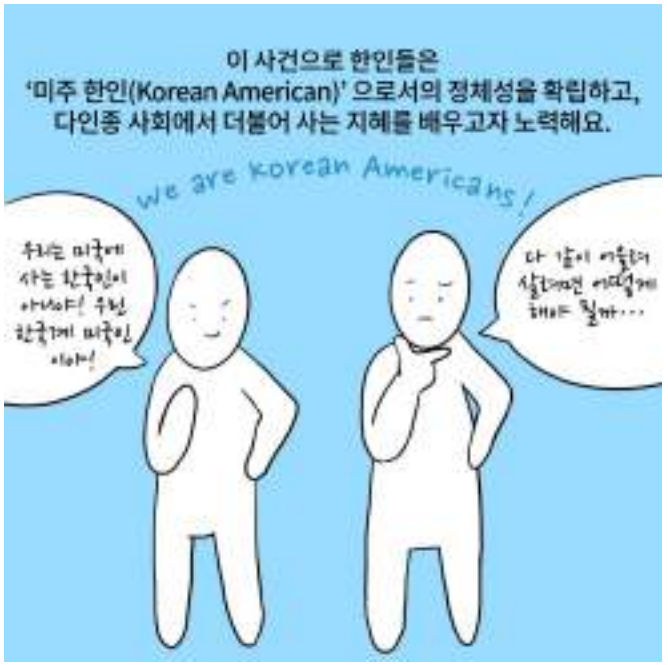
1992년 5월 4일 폭동은 결국 끝이 났지만
이로 인해 사망자 53명, 부상자 4천명이라는 인명피해와 함께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40%가 한인들의 손실액이었어요.
한인 손실액 4억 달러
10억 달러

약 2,280개의 한인들의 가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후잉~

또, 폭동 이후 한인들과 흑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한인타운에는 이를 대신하여 라틴계 주민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타 동남아시아계, 아랍계 주민들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20화

남은 한인과 흑인들 역시 폭동의 고통을 되새기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한·흑 간의 적대감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좀 평화롭게 살자..
사이 좋게 지내야지 ...


이 사건으로 한인들은
'미주 한인(Korean 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인종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해요.
We are Korean Americans!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야! 우린 한국계 미국인이야!
다 같이 어울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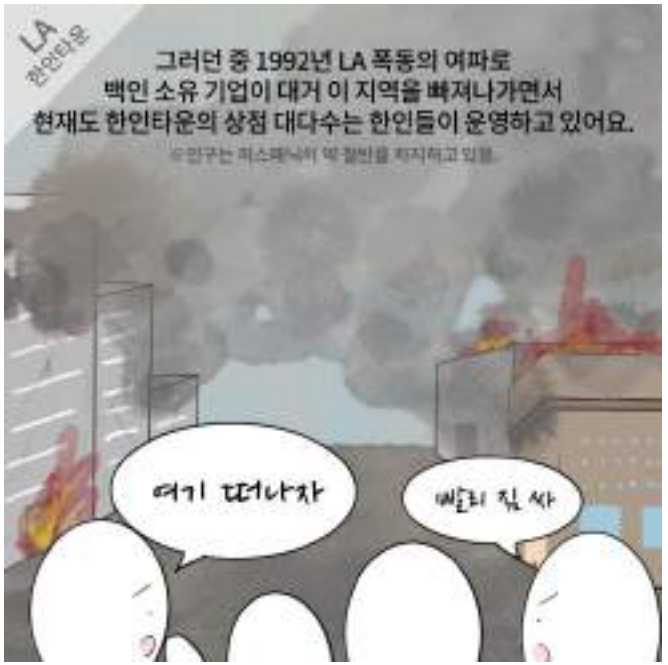
더 나아가,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주류 사회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우리도 정치에 참여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립시다!

이후 오리건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임용근(John Lim)',
미 연방 의회에 최초로 선출된 '김창준(Jay Kim)' 연방 하원의원 등
다양한 한인 정치인이 활발하게 활동해요.
존 임▸
◂제이 김
* 임용근(John Lim): 신학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와 여러 사업에 성공하였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오리건 주 상원의원으로 재임.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 하원의원으로 역임.
* 김창준(Jay Kim): LA 다이아몬드 바 시의원과 시장을 선출되었으며 미 국무부 외교협정비서관을 거쳐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연방 하원의원 역임.
21화

21화

LA 한인타운과 뉴욕 한인타운

21화


LA 한인타운
그러던 중 1992년 LA 폭동의 여파로
백인 소유 기업이 대거 이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현재도 한인타운의 상점 대다수는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떠나자
빨리 짐 싸

뉴욕 한인타운
한편 뉴욕 맨하튼의 한인타운은
L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인타운인데요.
약 21만명의 한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맨하튼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 삽시다!

뉴욕 한인타운
1920년대 이후 뉴욕 봉제,공장 지역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방인 32번가 일대는
임대료가 낮고 유동인구가 많았기에
한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뉴욕 한인타운
그러던 중 1978년 생긴 '고려서적'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점이 생기면서 맨하튼 한인 타운으로 성장했고
고려서적
뉴욕 도심에 살고 있던 흑인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32번가를 따라 계속 번성해왔어요.

21화

뉴욕 한인타운
이렇게 뉴욕 한인타운은
1995년 '코리아 웨이'로 널리 알려졌고
현재도 "모든 것이 한국적"이라는 명성을 가지며
한인들의 허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Broadway
West 32 St
Korea Way
22화

22화

명예의 전당: 미주 한인사회의 봉사자들

2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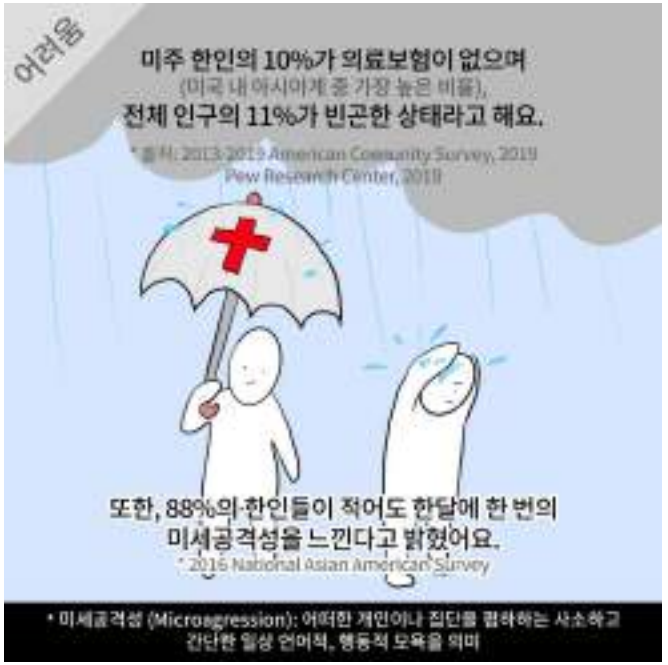
미주 한인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

23화

한류
또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LA KCON 등을
시작으로 2000년대 미국에 한류가 큰 문화 열풍을
불어왔고 현재도 '블랙핑크', 'BTS' 등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와아아~!!!!

한류
특히 할리우드에서도 '스티븐 연', '샌드라 오'와 같은
미주 한인 배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의 음식, 음악, 드라마 등도 더불어 사랑 받고 있어요.
음~ 코리안 바비큐~
한국드라마 너무 재밌어~

어려움
1903년 첫 공식 한인 이주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들은 약 120년간 미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왔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인들은 미국 내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어려움
미주 한인의 10%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미국 내 아시아계 중 가장 높은 비율),
전체 인구의 11%가 빈곤한 상태라고 해요.
* 출처: 2013-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9
Pew Research Center, 2019
또한, 88%의 한인들이 적어도 한달에 한 번의
미세공격성을 느낀다고 밝혔어요.
* 2016 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 미세공격성 (Microagression):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을 폄하하는 사소하고
간단한 일상 언어적, 행동적 모욕을 의미

23화

미래
한인들은 앞으로도 정치적, 사회적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 사회와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해요.

미래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Korean 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해요.